

17. 선악과를 금한 이유

창세기 2장을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문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한다.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다른 것은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까지 경고를 하셨다. ‘하나님의 세계에도 이런 제한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깊이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하는 문제와 깊이 관계된다. 다른 동물도 많은데 왜 특별히 사람을 지으셨는가?

여섯째 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을 것이다. 또한 아담이 여러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어느 생물도 배필로서는 온전치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는 너와 배필이 될 존재를 찾아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아담의 배필은 없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지으셨다.

이것은 다 같은 원리다. 창세기 1장에서 다른 동물들을 지으시고 난 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이나 아담이 여러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었지만 그의 배필이 될 존재가 없어서 하와를 지으신 것이 같은 원리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꼭 찾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이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한 데는 없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있다 해도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이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말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양이 없고 형상이 없는 분이니까 절대적으로 형상과 모양이 필요하다.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족하다고 한다며 트집을 잡는다.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가? 남자가 아무리 잘생겨도 여자가 없으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것이지 그분 자신의 사정은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다.

우리는 인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도 있고 ‘자기 멋대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제멋대로 살게 두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 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는가, 소에게 하시겠는가?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있으니까 하신 것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말을 안한다. 길가에 다니면서 아무에게나 이래라 저래라 하겠는가? 집 안에서 자녀들이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잔소리도 하는 것이지 남에게는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아버지라서 자녀에게 꾸중을 하는 것이지 아무나 꾸중하겠는가? 사람은 꾸중하는 것만 듣기 싫어한다. 어렸을 때는 특별히 그러하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남의 자식은 잘하든 잘못하든 말할 필요가 없다.

옛날 가족제도에서 큰아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한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간섭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에 비해 막내는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큰아들만 상속자니까 막내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큰 아들에 대한 기대보다 막내에 대한 기대가 적었다.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꾸중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대부분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는데 막내는 귀염을 받고 자라서 관계가 좋다. 큰아들은 자기 가문을 지켜 줄 사람이고 모든 것을 물려 줄 상속자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다. 사람도 하나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였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까지 하신 것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는 형상화를 의미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기를 나타내려면 형상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이 잘못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온전하신 분이라도 자기를 나타내실 수 없다.

성전을 지을 때 나무에 금을 입혀서 기구들을 만들었다. 나무의 생김새에 따라 금이 입혀졌으니까 나무가 잘못되면 금이 입혀져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TV에도 금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부품인 것 같다. 작아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이므로 자기를 형상화해 줄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도 우리가 못하는 일을 남이 대신해 주면 좋다. 그렇지만 일은 남이 대신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해도 되고 못해도 괜찮지만 형상이라는 것은 없으면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가? 형상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이다. 형상이 있으면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화를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예를 들면 전기가 있어도 캄캄한 밤에 불을 켜려면 전등이 있어야 한다. 전등이 있어야 방이 밝아지지 전기만 있다 해서 방이 밝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기는 절대적으로 전등이 필요하다. 동력을 내기 위해서는 모터가 필요하고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전등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말을 하고 싶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을 귀신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사람으로 말하면 마음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려면 형상이 필요하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마음을 가장 표현하기 쉬운 것이 말이다.

우상을 가리켜 ‘말 못하는 우상’이라 했다. 우상은 말을 못한다. 표현이 안되는 것이다. 인격으로 표현하는 것, 말로 표현하는 것,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은 전부 마음 때문에 되는 것이다. 마음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웃는 얼굴을 하면 가증스럽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행동하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기 어렵다.

마음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연출가들이 배우를 뽑을 때 얼굴을 본다. 나 같은 사람을 뽑아 놓고 깡패 두목 역할을 하라고 하면 되겠는가. 아무리 내가 인상을 써봤자 누가 무서워하겠는가. 인상을 쓰면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배우를 깡패 역으로 고른다. 여러 가지 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배우를 성격 배우라고 한다.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반대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능배우라고 할 수 있다. 배우는 표현만 잘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 자기를 정확히 나타내 줄 수 있는 표현체가 필요하다. 이것이 2장에 가면 사람을 흠으로 지으셨다고 표현한 이유가 된다.

‘형상화’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는 뜻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였다. ‘말씀’의 희랍어 로고스는 깊은 뜻을 다 담았다고 볼 수 없다. 원래 ‘로고스’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없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한 것은 마음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인격이 되어, 육체가 되어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한 것이다. ‘독생자’는 오로지 거기서 나온 그것이라는 뜻이다. 유일한 후사, 유일한 사람이다.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에서 사람은 형상화하는 데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형상화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사람이다. 날 때부터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고 영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다 같은데 무엇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영광스럽게 되기도 하고 추하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내 탓이고 추하게 되는 것도 내 탓이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어도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 영광스럽게 못되는 것이다. 대장 계급장을 받고 대장 행동을 못하면 부끄럽게 된다. 전쟁터에 보냈더니 도망만 쳤다면 “대장이 되어 도망쳤다.”고 할 것이니까 오히려 더 부끄럽게 되고 만다. 사람은 중요한 존재다. 무엇을 형상화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

형상화라는 개념이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였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산 혼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 사람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다. 경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동산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같은 흙이라도 농부에 따라서 소출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의 동산은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동산은 사람과 하나님이 동거하는 영역이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지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름다워져야 한다. 금수강산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맨날 싸움만 하고 있으면 금수강산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부끄럽게 되고 만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그 나라도 사람에 의해서 경작되는 나라다. 하나님은 똑같으니까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흙으로 지으셨다는 뜻이다.

흙은 씨를 받아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 흙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씨를 받으면 발이 된다. 그리고 경작을 잘하면 소출이 많아지고 열매가 충실해진다. 그러나 경작을 잘 못하면 열매도 쭈글쭈글하고 소출도 적게 된다. 농부에 따라서 받은 전혀 달라진다.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의 결과는 차이가 많다.

흙으로 지었다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진다. 옥수수를 심어서 경작을 잘 하면 옥수수 밭이 되고 굴을 심어서 경작을 잘 하면 굴 밭이 된다. 사람에게 의해서 경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경작자가 얼마나 필요하시겠는가!

땅을 맡겨도 부지런한 농부에게 맡기면 소출이 많아지니까 주인에게도 돌아올 것이 많다. 게으른 농부에게 맡겨 놓으면 소출이 적어서 얻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땅과 농부는 아주 중요한 관계다. 씨와 농부, 씨와 흙, 흙과 열매는 불가분의 관계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느냐 부끄러움을 당하느냐의 관계를 갖고 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사람이 잘못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리고 사람이 잘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람은 중요하다.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허비한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대해서 생육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인 동시에 인생의 문제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영광스럽게 되는 귀중한 문제다.

아내가 잘 해도 집안이 잘되고 남편이 잘 해도 집안이 잘된다. 이래도 내 집이고 저래도 내집이다.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알고 보면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다. 각자 자기를 위해 충실히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충실히 살려고 하면 자기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히 살아야 내가 영광스러워진다. 이것이 사람의 위치다.

이 위치를 이탈하면 다른 길로 가 버린다. ‘이것은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길로 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다. 예수님은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라고 기도하셨다(요17:6,10).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분이 다른 성인들과 다른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서 사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참람하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들었던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관계를 알았으면 ‘그분은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구나.’라고 알았을 텐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모르니까 ‘하나님 것이 다 자기 것이라니 건방

진 놈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꼭 같이 있어야 되는 존재다. 아내가 “남편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남편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요즘은 잘못되면 법적으로 갈라야 하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알기 어렵다. 율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려니 되겠는가? 율법에는 여호와 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다. 여호와를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도 큰 문제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 데…….” 하신 것도 큰 문제다.

사람은 위대한 것도 아니고 위대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개는 개고 소는 소다. 만물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지 다른 것이 없다. 개도 주인을 잘 만나면 호의호식하고 잘 산다. 그렇지만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개는 개다. 개가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이 있으면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하나님과 친하고 가까울수록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사람 자체가 다르게 보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신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이다. 그분은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보인 것이다.

개가 아무리 주인에게 사랑을 받아도 개로 보이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옷을 입혀놓은 것을 보면 이상하다. 옷이 없으면 차라리 개로 봐 줄만 한데 옷을 뒤집어쓰고 다니면 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뒤집어쓴다면 어찌 되겠는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만은 다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 버리면 안된다. 이것을 잊어 버리면 다른 동물과 똑같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잊어 버리면 안된다.

‘성육신’, 이것은 전 성경의 핵심이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형상화된다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형상화된 것,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고 전 우주의 완성이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사람이 이보다 존귀해 질 수 없다. 사람은 이런 입장인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은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혼자로도 안되고 사람 혼자로도 안된다. 아담 혼자로도 안되고 하와 혼자로도 안된다.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 데려왔는데 아담의 배필이 없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인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지었더니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는 모양은 다르지만 한 생명이라는 뜻이다.

연합은 무엇인가? 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한 생명이라야 연합이 된다. 모양이 달라도 한 생명이면 연합이 되는 것이다. 연합으로, 연합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마지막에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이 형상화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번성되어야 하는 모든 문제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합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지 않는다. 형상으로서의 사람과 생명으로서의 하나님이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 연합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 전체가 안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따로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되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자. 사업도 잘되고 다 잘되었는데 집에 가면 아내와 남편이 남남이라면 어찌 되겠는가? 돈이 있어도 소용없고 사업이 잘돼도 소용없다. 다 소용없게 된다. 아내와 남편이 둘이 하나가 되어 자녀를 낳고 해야 가정이 된다. 가정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돈도 버는 것이다. 옛말에 여자가 홀로 살면 돈을 모으지만 남자가 홀로 살면 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돈 많은 홀아비는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하나님의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여자는 판 데 시집이라도 가야 되니까 돈을 모으는데 남자는 그렇게 안되니까 돈도 모으지 못한다.

모든 세계는 연합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연합을 방해한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멍청이가 될 것 같다. 지식은 분석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이 많아진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연합이 안된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연합에는 도움이 안된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만들어내는 데는 필요하지만 연합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교회는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다. 사람이 연합하는 데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이다. 연합이 안되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소용없고 다른 것을 다 잘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초점이 교회에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교회가 다른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눈은 교회에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다른 데는 다 좋는데 연합에 방해가 된다.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데는 지식이 방해가 된다. 꼭 필요한 것인데 이상하게 한 군데 연

합에는 방해가 된다. 가정도 안되고 교회도 안된다. 연합이 돼야 할 자리에 가면 안 된다. 내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다. 연합이 안된다. 남북으로만 갈라진 것이 아니다. 갈라져서 원수가 되다시피 했다. facebook 같은 데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심각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세대는 처음 봤다. 일제시대, 해방 후, 정부 수립기, 6·25 사변, 4·19 혁명, 5·16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분열된 적은 없었다. 조선시대에 사색당파가 나라를 망쳐 먹었는데 사색당파 문제와 다른 것 같다. 그때도 심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했을까 싶다. 그때는 사대부들만 그러했지 일반인들은 그런 것이 없었다. 지금은 두 조각, 세 조각으로 갈라졌다. 연합이 안되면 나라도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신 것이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은 단절된다는 것이다.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무엇에서 끊어지는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끊어져 버린다. 그래서 모양은 있는데 교회가 안되는 것이다.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로 다른 것만 많이 있다.

선악과가 들어오면 연합을 방해하고 생명을 왜곡시킨다.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게 되고 상종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단절이다. 단절은 곧 죽음이다. 그래서 아담은 추방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에 있을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세계를 잘못한다. 전도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얼마나 지독한지 도저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멸망이다. 멸망이 다른 것이 아니다.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죽는다는 말이 아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 이것이 멸망이다.

동물들도 먹고 살려고 하루종일 돌아다닌다. 우리 연못에 고기를 넣어 놓았는데 날이 밝자마자 두루미가 지키고 있다가 그 시간에 와서 고기를 잡아먹는다. 이번에는 어디서 청둥오리 한 쌍이 왔다. 두루미는 가만히 서서 자기 앞에 오는 고기밖에 못먹는데 그놈들은 헤집고 돌아다니며 잡아먹는다. 그것도 둘이서 그러니까 도저히 말할 수 없다. 그날 추워서 고기들이 만나와서 잡아먹히지 않았는데 동물들도 먹고 살려고 그렇게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다. 우리가 그것들보다 먼저 일어나면 쫓아낼 수 있는데 늦으면 그것들이 와서 헤집고 다닌다. 생존경쟁이 이렇게 치열하다. 인간들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뭐하겠는가. 다른 동물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동물들이 더 좋은 것을 먹고 산다. 인간들은 화학약품이 들어간 것을 먹고 살지만 동물들은 그런 것은 안먹는다. 라면을 끓여 주면 개도 안먹고 고양이도 안먹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산다고 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산이 아니면 사람이 따로 동물과 특별하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연합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안된다. 연합이 없이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론이 발달해도 이것은 한 치도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한 치도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 않는다. 생명의 세계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지식이 들어와서 간섭하면 생명의 세계는 죽어버린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어디서 연합이 가능한가? 그것이 십자가다.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 때문이다. 너무 다르니까, ‘아! 신이다.’ 할 정도니까 어떻게 연합이 되겠는가. 사람은 지식만 달라도 말이 안통하니까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과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같이 앉아서 대화가 되겠는가. 유유상종이라고 많이 배운 사람끼리 놀고 못배운 사람끼리 노는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 능력은 모든 것을 분열시킨다. 우리를 갈라놓는다. 그러면 사람이 어디서 합해지겠는가? 사람은 천차만별이고 재능이 다 달라서 똑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열 명에게 천만 원씩 주고 그 돈으로 각자 역량껏 불러 보라고 하면 결과가 다 달라진다. 다 같은 사람인데 왜 달라지는가? 나도 장사를 하다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안되니까 돈이 없어지는 것이다. 혼자 먹고 살려면 한 달에 50만원만 있어도 된다. 천만 원이면 20개월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천만 원을 주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해 보라고 하면 석 달이 안간다. 이상하다. 먹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돈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모른다. 하는 것마다 안되면 천만 원이 삼개월도 안갈 수 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에게 돈을 맡기면 벌 농인지 없애버릴 농인지 알고 돈을 맡기지 않고 다달이 조금씩 준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굶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월급 주듯이 주지만 돈을 맡기지 않는다. 부모가 볼 때 돈을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되면 돈을 맡긴다.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있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오천 만원, 삼천 만원, 천 만원을 맡겼다. 갔다 와서 셈을 해 보니 오천 만원 맡은 종은 오천 만원을 더 남겨서 일 역을 가지고 왔고 삼천 만원 맡은 종은 삼천 만원을 더 불려서 육천 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천 만원을 맡은 종은 천 만원을 그냥 가지고 왔다. 주인이 그 종에게 왜 천 만원을 그대로 가져왔느냐고 물으니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기 때문에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잘했다고 하지 않았다. 차라리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늘리지 않았으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셨다. 돈을 맡겨 놓으면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온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어 줘도 나중에 보면 한 군데로 모아지지 똑같이 갖고 살 수 없다. 사람마다 재능과 능력이 다르다.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잘 번다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살 수 없다.

어떤 형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교에서 일등을 했다고 한다. 그런 천재가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 보니 자기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자기는 책을 세 번쯤 봐야 외우는데 그 학생이 한 번 보고 다 외우는 것을 보고 손을 들었다는 것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한 번 보면 사진 찍듯이 외우는데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2등이 1등을 따라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케이스다. 어릴 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2등만 했다. 1등을 해 보려고 애를 써도 안됐다. 1등과 2등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될 수 없다.

생명으로만 하나될 수 있다. 사람은 다 하나님에 지으셨으니까 여기서는 다 같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면 연합이 된다. 예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느냐에 따라 그분과 연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도저히 그분과 연합이 안되는 자리에서 만나면 안된다. 아무리 그분을 따라다녀도 안된다. 제자들은 삼 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안됐다. 삼 년 아니라 삼십 년을 따라다녀도 안된다.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진다.

예수와 우리가 만날 자리는 딱 한 자리밖에 없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같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려 해도 그 자리에 가야 연합이 되지 다른 자리에서는 연합이 안된다. 예수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면서 하나가 되려고 해도 그 자리에 가야 하나가 되지 다른 자리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안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하나 되면 모든 사람과 하나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와 하나 되면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된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나 혼자서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그분에게 포함되지 않고 그분과 연합되지 않으면 누구와도 연합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그 자리에서 연합이 안되면 누구와도 연합이 안된다. 그러니까 예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분과 나는 하늘과 땅처럼 연합이 안될 사람인데 거기 가면 연합이 된다. 이것은 그분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다.

나와 하나님의 문제라면 나 혼자 하나님께로 가면 그만이지 내가 왜 이런 말을 자꾸 하겠는가.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의 문제다. 친구와 하나 되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밖에 안되고 아내와 하나 되려고 해도 거기서밖에 안된다. 그러니 어떻게 이것을 무

시하겠는가.

이것을 무시하면 예수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분은 선생님밖에 안된다. 여러분과 나 사이도 똑같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내가 더 많이 알 수도 있다. 이런 면은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저런 면은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다. 거기서는 다 다르다. 연합이 안된다. 그런 것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다. 연합만 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필요하다. 그러나 연합이 안되면 아무것도 필요없다.

이것이 가려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으로도 안되는 일이고 무엇으로도 안되는 일이다. 어떤 종교로도 안되는 일이다. 지식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에게 가려져 있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지식의 열매다. 이것 때문에 안된다. 다 같은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안되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가! 일점 일획도 틀리지 않다. 성경을 쓴지가 언제인가. 삼천 년이 넘었지만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서 뱀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 맞다. 지금도 뱀의 정체를 모르고 뭐가 마귀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만은 사실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때문에 연합이 안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와 내가 하나 된 자리에 가서 그분과 내가 연합된 것도 사실이다. 둘 다 분명한 사실이다.

연합이 안된다는 말은 말이 안된다.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사실을 보기만 하면 하나다. 재보고 할 것도 없다. 지식은 같은지 아닌지 알려면 재 봐야 하고 토론도 해 봐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이니까 보면 안다. 십자가에서 못내려온 것을 보면 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분석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못내려온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알 수 있다.

그것이 참 우리의 위치다. 이것만 참되고 다른 것은 다 지식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다. 지식으로 만든 것은 없어질 수 있지만 원래부터 있는 것은 변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이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온전하게 밝혀지기 원한다. 우리 교회만 온전하게 밝혀져도 이것은 큰 문제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신 것이다. 그것을 숭상하게 되면 죽음이다. 이러니까 저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니까 하고 숭상하게 되면 영원히 죽음이다. 왜곡이고 죽음이고 단절이다. 연합이 불가능하다. 연합이 불가능하면 연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모든 축복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겠는가. 방송을 보니 맨날 기도하라는 말뿐이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나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다. 오히려 기도하라는 말이 더 어렵다. 율법은 지키기 쉽다.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없다. 율법을 보면 '이것은 내가 지키지 못하겠다.'고 할 것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성령을 힘입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렵다. 될 것 같지만 안된다. 나도 몇 년 동안 고생해 봤는데 안된다. 차라리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분석해서 비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뭔가 하고 봤더니 율법 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더 어려운 것을 내놓고 그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었다.

적당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지만 기도가 상달이 돼야 되지 자기 혼자 중얼거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알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속을 알아야 기도가 되지 하나님 속을 모르면 중언부언하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줄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김치국부터 마시면 되겠는가. 밥 먹을 때 필요하지 빵에는 김치가 필요없다. 밥인지 빵인지 모르고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면 속만 아프다.

이것은 비밀이다. 너무 큰 비밀이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무 쉬운 것이다. 너무 많이 알아서 어려운 것이지 몰라서 안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속았다고 하는 것이다. 속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속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어려워져 안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찬송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어떤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설교를 하는 것을 보니 어떻게 우리 마음이 청결해 지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청결하다고 보실 정도로 청결해지겠느냐며 그러니까 기도하고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이다. 웃으면서 좋은 인상으로 말은 잘했지만 더 어려운 답을 내놓은 것이다.

청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자리에 오면 저절로 청결해진다. 사람의 위치에 오면 그것이 청결이다. 그것이 가난함이고 온유고 화평이다.

이것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조작에 불과하다. 억지로 해 보는 것이지 순수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덟 가지 복을 다 해 봐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팔복이라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나에게 되지 않는다. 여덟 가지가 다 이

한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폐했다고 생각한다. 폐한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한 것이다. 진짜로 청결하게 하고 화평케 하고 온유하게 한 것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 자리가 아니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 보면 안다. 안 해 보고 '뭐가 그것밖에 없다고 하느냐?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해 보면 안다.

젊은 학생들과 얘기해 보면 다 듣고나서 "그렇지만 그것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한다. 잘 듣는 줄 알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다 듣고 "그렇다고 그것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한다. 나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것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이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 사람들은 "내일 또 와서 들어보자."고 했고 바울이 말쟁이라는 소문을 냈던 것처럼 어렵게 되었다. 어쭙잡이 아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서 여러 가지를 들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는 줄 안다. 유일한 것, 절대적인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것이 미국 정신이다. 나 같은 사람이 말하니까 권위가 없지만 교황이 와서 말하면 "꼭 그런 것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해 보면 학생들이 듣고 "좋은 말이기는 한 데 그렇다고 그것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검사해 보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온전한 복음이 없는데 말을 해 놓고 나면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까?"라고 반응한다. 그래서 또 얘기해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이라도 거짓말이 없다. 사실이 아닌 것을 써 놓았겠는가. 자기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해봤자 헛일이다. 자기 인생만 길을 못찾고 헤매게 된다. 자기 인생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다 끝나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며 열심히 믿고 섬겼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반대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고 꼭 그것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기도한다.